

聖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뿌려지면 한 백이 열매를 맺느니라

支那(中國)圖書館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九 台
發行所 田 榮 澤
主 筆

統一爲해서는南北選舉도不謝

李大統領南北統一方途修正?

政治會議會期の限定 格外的條件으로 休戰에 同意한 李大統領은 休戰成立以來 捕虜說을 政治會議開議等 그後の 事務를 注視하고 있던바 지난 二十二日 요시다들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韓國의 統一을 爲하여는 北韓을 爲하여 남거둔 護憲을 固守기爲하여 北韓市民의 自由로운 選舉를 實施하자는 從來의 變함없는 主張이다 그러나 만일 北韓의 市民들이 選舉를 通하여 統一韓國의 大統領을 選出하기를 熱望한다면 나는 從來의 主張을 固執하지 않겠다 될수있는대로 韓外의 壓力을

물리치고 民族自決의 原則에 立脚한 選舉가 實施되기를 望한다 나는 그들에게 強要할 意思는 아니다 그들은 眞正의 自由를 갖고 어느 누구도 大統領으로 選出해도 좋다 나는 나의 地位를 유지하려고 이러한 意圖를 거절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이 聲明의 裏面에는 어떠한 計劃이 있는 것인가 모르지만 二十四日 國會에서는 이 言明의 內容을 檢討하기로 하여 李大統領自身이國會에出席하여 說明하기를 要請하기로 可決하였다 한다 一方 北韓은 中共과 다시 새로운 軍事協定을 締結하여 美國務長官에게

바문다三國巨頭會談의國際緊張을緩和

美官邊側에서는 十二月四日부터 開催되는 美、英、佛、三國巨頭の 바문다會談은 스타린의 死亡後에 소련의 行動의 意義를 檢討할 함에 있어서는 最近 美英佛三國과 소련사이에서 交換된 覺書도 또한 考慮할것이다 十一月三日付의 소련覺書에 對하여 十一月十六日發送된 美國政府의 回答은 지난十一月

社說 크리스마스의 胃潰

크리스마스가 가까오매 우리들은 나날이 성탄에 대한 모욕을 느끼지 아니할수 없고 분격을 금할수 없다.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갖은 죄를 범하기는 오늘날 세계만 그런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온 세계에 살벌(殺伐)과 죄악이 차고 인류는 부패와 파멸에 임하였을때에, 모든 성현과 철인이 천연언어(千萬萬語)로 가르쳐도 그것은 첫일일뿐이요 인간은 여전히 나날이 자멸의 무저항으로

굴러들어가려 할때에 최후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으니 저는 암흑한 인간에게 하나임을 보여 주었고 몸소 피를 흘려서 사랑과 용서의 대도(大道)를 밝히 보여 주셨다 그리하여 예수의 탄생은 세계사(世界史)의 새기원(新紀元)을 지었고 전 인류에게 참빛과 구원의 희망을 주었다.

인생이 어찌 이날을 잊으며 보다 더 존귀한 날이 있으랴 따라서 교회가 생기자(十二月二十五日)를 정하여 예수의 탄생을 기념

하며 경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크리스마스」가 다만 교회의 축일일뿐 아니라 온 세계인류의 경축일이 된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결코 오늘날 기록교회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과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유와 인생의 본연한 중심에서 이를 축하고 기뻐하는것이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고맙고 귀한 날인 동시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날이다 홀로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과 육을 당하시기 시작하시는 날이요 지옥같은 세상에 하나님께 친히 임하신 날이니

氏의「北韓、中共의 軍事協定은 北韓의 中坐共同分割의 一歩進이라」한바와 같이 平和의 南北統一의 實現은 容易한 일이 아난 現今에 右 李大統領의 聲明은 自못 注目되는바가 있다 할것이다.

十三日에 行해진 모로토프소련外相의 記者會見과는 아무런關係가 없다. 十一月三日付의 소련覺書에 對해서 回答을 發送하기로한 決定은 同覺書三國首長 接受한 數日後에起草委員의 손에 의하여 巴里에 報告되었다. 지난 十六日 모로토프政府에 手交된 回答은 同相은 協談한것이 있었으며 同首長은 回答의 內容에 同意하였다 美官邊側에서는 모로토프外相의 그記者會에서 소련覺書가意味하는覺書自體보담도 더욱더 平穩한 말로서 說明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모런 새로운 說明을 付加되어있지 않다 고 보고있다 十六日의 西歐側 回答은 소련政府의 어떤 特定한 條件이 受諾되지않은限에 同相은 會談에는 應할수없다는 態度를 明示하였을에 反對하여 西歐三國은 全然無條件으로 소련과 會談하고자하는 意向을 가지고있다는 記錄을 남기는것이 目的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짓게 되는 거룩한 길에 열리는 보배로운 날이다 그리고 특히 세상에 놀리고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보라 벌써十一月만 되면 모리와 사치의 중심이 되는 거리에는 소위「크리스마스주리」장식으로 선전거리를 삼고 돈많은 태평한 백성들은 한껏 제 친구에게 온갖 값진것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보내기에 바쁘지 아니하나 성탄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통과 불행에 울고있는 이들을 생각하려는 자가 몇

無題錄

「一週一題」라고 한 번하고 계속를 잊어서 未安한 뜻을 논저 말해 두다.

「웃고 살자」하는 것이 요새 내 마음의 정신했다. 느긋하고 간결한 소원이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우 리 살림이 고되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니만큼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우리 동포끼 리는 좀 단련된 서로 웃고 손이라도 파우어 잡고 정답게 지내고 싶다. 세상에 한 형제끼리 한 집안에서 무슨 상사나 당 한듯이 이마에 내친 자를 그

지난 七日부터 西歐側으로 부 작되어 오늘까지 종종 행 해진 獨逸과 어스도리아問題 에 關한 外交文書의 交換은 結局 外交交渉을 以上 日 推進시키도 應의 進展을 期 待하는 希望은 全無라는 結果 有었다.

에 이르렀다. 그러나 美國으로서는 獨逸問題解決과 어스도 리아和平條約의 締結과 韓國의 平和樹立을 連히 解決함이 國際的緊張의緩和을 推進시키 기 위한 先條件이라는 見解를 依然 버리고 있다.

사람이 있는 오직 자기 욕정과 야심 만족시키기 에 자기 쾌락과 교제에 이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나.

그리하여 단전후에는 소 위 「크리쓰머 파티」라고 돈있고 세력은 자와 부랑배 들이 모여서 술마시고 춤추 고 갖은 應한 유흥을 마 음껏 행하 않는다.

백성들은 바람이야 불거나 말거나 남과 일거나 굶거나 큰 문은 문을 굳이 닫고 저허리만 마음껏 먹 고 마시고 즐기는 기호로 산다.

심지어 밖에서도 많은 경비를 들이 장식하며 연극 으로 음악으로 거룩한 제단 을 극장화한 자기네끼리

리고 서로 소담 보듯이 불 부은 열기로 지낸다면 이에서 더 괴롭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형제자매끼리 동도끼리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를 지었다고 말도 안하고 인사도 없이 먹

먹하고 지낼 까닭이 무엇이랴 설혹 다 소간의 형이나 악감정 이 있더라도 늘 그렇게만 지 낼수가 없으니 어느 편에서나

문저 말을 부치거나 인사할하 면 저편에서도 같이 웃음으로 대할것이지요 그리하여 다시 접 근(接近)하고 항친할 기호가 될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들은 기차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하 고 사귀다가 있고 서양사람들 은 호텔에서도 모르는 사람끼

리고 서로 빙긋 웃고 「공모팅」하 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네는 한 동네 이웃끼리는 말할것도 없고 한 어촌 한 공판안에서

남과다 보면서도 인사를 아니 하는 것이 가장 잘난 사람들이 다.

동도끼리는 물론이요 누구나 같은 사람이면 서로 웃고 정 담게 지내자 밤낮 서로 파 증한 내지 말고 서로 웃고 지 내자 그리하여 남의 단전만

보지 말고 장치를 보라 그리고 내며 당파적인 들떠다 보지말 고 가끔 무슨 하소나나 반박 이 는 별을 바라보라 그리하여

서로 웃고 살자 사람이든 사 귀면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니 서로 웃고 살자.

政治會議으로 捕虜는 釋放

下韓國外務長官이主張

下榮泰外務部長官은 十七日의 記者會見에서 다음과같이 言明 하었다.

一、韓國政府는 明年一月까지에 政治會議을 開催되자면 捕虜를 그후도 抑留하여야 한다는 印度政府見解에는 反對한다 共 產黨의 非妥協性으로 捕虜를

이以上의 苦生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期限滿了時(一月二十

즐기며 한껏 세력있는 이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 하거나 불행한 형제를 돌보 는 일에는 등한한 것이 사실 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다 이날의 본의에 어그러진바 실로 크리스마스의 모독이요 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날 영도의 집정관 「크롬웰」 과 같이 성탄페지를 부르짖 고 싶다.

바라건대 신자들은 솔선하 여 이날에 예수님의 인간하 강(人間下降)과 고난을 생 각하며 불행한 고아와 외로 운 형제자매에게 따뜻한 밤 한 그릇을 대접하기로 힘쓰므 로 성탄절의 본을 보이자.

韓國 NCC 總會

任員改選

韓國 NCC 第七回定期總會는 基 年 十一月五日 서울鐘路 基

督教書會안에서 副會長 黃鍾律氏 司會로 開催하여 會長 金仁泳 牧師와 幹事 方華日牧師의 주도로 式을 舉行하고 다음같이 新任 員과 實行部委員을 擇하였다

會長 金昌根 副會長 金錫珍 趙信一 張云用 書記 金鍾한 會計 金尙德

實行部委員 △長老會 金炳昌 金允찬 全錫 金 朴찬득 金在錫 金光수 △監理敎 朴昌鉉 文昌模 金光 우 △聖潔敎 千金鳳 趙仁찬 趙儀 現

△救世軍 安吉和 梁豊留

釜山에 大火

五千戶燒失

二十八日 아침 방송에 의하 면 本國 釜山에서 二十七日 밤九時에 보수동방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여 마침 불이오는

강장에 삼시간에 사방으로 퍼 저서 대청동에 있는 미국대사 관과 또 국제시장을 다시 태

우고 한편으로 동광동, 대교동 방면으로 연소하여 부산역까지 났다고 한다 소실된 것이 전부

五천호요 이 재민은 약 二만 명이 된다고 하며 국제전보는 불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 손해액수와 불난 원인은 알수 없으나 이 치운 동절에 이

재민의 참상은 목불인견의 정 경이니 급속한 구제대책이 요 망된다고 한다.

人事

○咸台永 副總統十一月二十三日 하와이로부터 羽田着 東京에 一泊、二十四日 노스웨스트航路 歸國。

○金三道君(吳福江氏三男)과朴 順愛媛(朴順伊氏女)의 婚禮式 十一月廿五日大坂敎會에서 朴 命俊牧師主禮로 舉行。

○韓大君君과 李信順媛(李信順 長老三女)의 婚禮式廿六日神 戶敎會에서 崔正洙牧師主禮로 舉行。



望臺聲

○부대령 령 함태 영 목사 남이 이 번에도 그날 성히 다

내 가신것은 매우 유감이다. 남이신 몸으로 먼 길을 무사 히 다녀오신것만도 고마운 일 이니 마는 그래도 몇날 묵으

시면서 민단도 찾아보시고 靑와 YMOA도 찾아보시고 그보다도 몇곳에 가장 끈고하 게 지내는 동포의 부락을 한

번 돌아보셨다면 좋았을 것이 가 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을 말함 드린 일이 있거니와, 물론 비

용을 쓰실것도 없고 별로 말 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저

한번 친히 가셔서 만나보시기 만 하셔도 그네들은 무척 반

갑고 그마위할것을 : 매우 성 신한 일이다. 물론 예정한 여 정이라 여러날 묵으실 형편이

못되겠지만, 애초에 예정을 그 령게 하시지못한것이 유감이다 ○여기다 외지에 있는 사람은 마한가지지마는 이곳에 있는 이 들은 갖 건너온이나 오래된이 나 말할것 없이 다 타국생활 에 지쳐서 언제나 조국이 그 림고 조국 친구가 그림고 고 향소식이 궁금한것이다. ○그런 때에 한번 찾아가보기 만해도 친목중에 말할수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것이다 이 령게 찾아보고 돌아보면 내 형제 내용도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멀어지고, 불안 아니과 끌리고 괴임을 받아서 남의백성이 되지않는가.

勉青中央委員會開催

會長制를 委員制로 再發足

在日本大韓基督教勉勵青年會連合會는 卽ち五年間 尙正金錫珍 會長、副會長李鍾賢氏를 中心으로 各教會勉勵青年會를 網羅하여 그 發展에 努力하여 오던바 今年八月十七日現地湖佐波江에서 勉勵青年會連合會在日大韓基督教總會 青年局과의 共同主催로 모였던 全國青年修養會에서 連合會總會를 廢止하여 그 機構를 改革하여 從來의 會長制를 委員制로 改行하고 全國을 關東、中部、關西、西南、四區域으로 區分하여 地域連合會를 組織하며 中央委員二名씩을 選出하게 되었는바 그 第一回の 中央委員會가 지난十一月二十三日에 大阪市東區大成通大韓基督教大阪教會에서 開催되었었다 한다.

關西地方連合會도創立

勉勵中央機構의 改組에 關한 關西地方勉勵青年會連合會가 지난十一月二十三日 在日大韓基督教大阪教會(大阪市東區大成通)에서 開催되었었다 한다. 同中委의 今後의 活動을 期待하는바이다.

孫昌植先生을中心한 在日韓國Y舍生懇談會

우리나라에 유일한 발명가로 생과 일반 사생이 한 자리에 「대한의 에디슨」이란 이름이있고 과거에 우리교육에 공로가 큰 손장식(孫昌植) 선생이 香港에서 와서 당지에 당분간 체류하고 계신 기회에 서 그리고 그가 일찌기 학창 생활과 연구생활을 하고있을때 에 四년이나 우리YMOA 舍사에 사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많은 발명을 하는데 중요 한 실험을 해온 인원이 있으므로 지난 十一月十七日오후六시에 동지를 청하여(그가 비 용을 가담하여) 숙사에있는 학

通)에서 各教會勉勵代表八十餘名 參席하여 金振王氏의 司會로 그 創立總會가 開催되었었다는데 이날은 특히 土山牧堂教授(大韓學塾) 吳丁仁善牧師(總會教育局長)의 講演이 있었 다하며 이날 選出된 任員은 會長 金振王氏 副會長 金錫守氏 書記 金錫分氏 副書記 尹鍾賢氏 會計 朴鍾泰氏 副會計 金正福氏 傳道部長 金相玉氏 智育部長 韓在秀 音樂部長 鄭源子氏

우리국민성과 우리사정에 맞도록 지키는것이 중요것이다. 현재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대개 교회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소인극을 하고 예를 들 서로 바꾸고 새벽찬송을 다하고 그리고 병원이나 고아원을 찾아보고 경비가 남으면 근방에 있는 극빈자에게 쌀도 쌀알이나 틀라주는 정도이다 그리고 서로 성탄축하장을 보내는것이다.

한국사람이나 내담하는 동포가 지 해주었다. 그리고 후에 이 기속사는 무슨 미션술이나 신학연구회 사람이 아니냐 신학연구회가 있고 밤에는 영공시간과 소공시간 있다 동포중에서 무슨 불 행을 일한 당해도 이리로 찾 아오고 무슨 어러한 일을 당 사생끼리는 잘 친형제같이 재 미있게 지낸다 여기서 수 많은 영공 와서 말하고 입 양하고 나자 한국에서 불행 학수속은 물론이요 직업소개하 하게 일하 이가 참 많지요

크리스마스를어떻게지킬가

田榮澤

크리스마스는 이제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었고 불 신자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친구에게 축하 장이나 선물을 보내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

그런즉 우리는 이제 서양사 람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습관적 으로 해오는데를 그대로 따라 갈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우리 대로 성탄의 본의를 생각하고

너무도 생각없이 지켜왔다 고 할수있다 그저 교회 젊은이들이 하자는대로하고 원하는 대로 경비를 지출해서 그 경비를 대개 장식과 연극과 준 비하는동안 저녁과 밤참값에 허비하였다.

크리스마스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가지 행사와 거기에 딸린 풍속을 유럽(歐羅巴)에서 오 람동안 내려오면서 한 관습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크 리스마스 나무」를 해 세운다든지 「탄타클로스」하러가지가 나와서 예물을 주는것은 다

말하면 지금껏 우리가 지켜 오는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쁘게하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한번 즐겁게 지내는 기회에 지내지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다시 말하 면 그동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두 방면으로 갈라서 뜻있게 지키기를 우리는 주장한다. 하나는 교회에서 할것인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二十四日 밤참 고요히 모여서 왜 예수 되였는가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그 고생 은 누구를 위하여 당하셨는가 하는것을 구약이사야(五十三장)에 노나면이되 반드시 이웃의



손 장 신 선 생 중 심 간 담 회

나는 치바(千葉)에 있는 공예에 가쳐 있는 나를 일부러 찾
아주시고 여러가지 한국에 건
설사업을 할것을 의논하시기에
지는 상해서 지냈읍니다. 누가
구체적인 안을 내서 드림 일
후원해주는 이가 없고 그리고
현은 못되었읍니다. 대령
있지만 한동안은 돈도 좀 벌
었지오 지금은 홍콩에서 남의
고용살이를 하고있읍니다. 해
방후에 우리대통령께서 (그때
는 대통령되기전에) 미국갔다
오시다가 상해에 들려서 감옥
에 많은 기부를 한일이 있다

韓日會談의展望

任哲鎬代表談話

동경 한국 기록교정년회 주최로 모이는 와이쓰멘트·클
럽 (금주 예회(例會)에서(二十日오후二時) 한일회담 임철
호(任哲鎬)대표는 한일회담에 관하여 개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文責在記者)

한일(韓日) 회담에 있어서 적국이 아니고 그 영토이었으
면 위협과 속임으로 점거 당
한 문제점은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선(漁業線) 문제 이 두가
문제로 보고 있다.
먼저 재산청구권문제에 대하
여 일본측의 태도가 주목되는
바이다. 그들의 이러한 청구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양 교전적(交戰國) 적국(敵國)이었다.
사이에서 개인의 재산은 존중
하고 이를 침범할수 없다는
국제법에 의거한다고 한다 그
러나 우리는 일본과는 교전한
불행한 아이나 외로운 과부
부인 혼자 사는 하라버지가
있으면 청해서 정성껏 대접할
것이다 그때에 음식이나 예물
을 일일 내집 식구와 차별이
없이 해서 따뜻한 사랑을 보
일것이다.

그리고 집에서도 전날 밤에
나二十五日 새벽에는 식구가
모여서 예수 오신 뜻을 묵상
하므로 그집에 예수께서 영으
로 임하시도록 할것이다.
그리고 교회로나 개인으로나
고통중에 있는 병자나 병원과
고아원을 찾아보는것은 그대로
행하고 의복차림차림을 검소하
게하고 행동을 경건하고 겸손
되게하고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않고 무언중에 전도가 되
도록 할것이다.

오늘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
가 없는것이다. 어족(魚族)과
어장(漁場)의 보호는 말할것
없는데 그 어장이 한국과 일
본과 같이 가까이 상대한 사
이에 있을때는 그 어장의 가
까운쪽의 나라에서 이를 보호
하는것이 국제적 전례가 되어
왔다 일본인인 그 어회(漁獲
會)를 위하여는 현(懸)과 현
사이에도 싸움을 하고 있지않
은가? 한 어장을 가지고 경
쟁하여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족의 절멸(絶滅)에 이를것
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
민국(露國)과 어업의 협정을
체결할것이 대일 강화조약의
의무로 되어있다.

또 한가지는 이 업선을 평
화선이라는것은 양어국간의 분
쟁을 막고 군사적 의의로 보아도
한 한계의 선을 두고서 활동
해야한다. 그러므로 이 선을
존중하여 서로 협정을 맺어
한일우호를 꾀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

廣島縣東城町內

開拓傳道所

우리 동포는 일본의 궁벽한
산촌에도 들어가 머물러 살고
있는데 서일본(西日本)의 세
도나이하이(瀬戶内海)와 동해
일본해)의 분수령인 심산(深
山)고악지대 동성(廣島縣東城
)에있는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대한기록교 서남지방
회 전도부(부장金泰烈전도사)
께서는 미요시(三次) 교회 한
윤주장으로 및 교우의 열렬한
후원으로 지난 二十二日 동지
방에 개척전도를 시작하여 전
도소를 개시하였다 한다.
동 지방은 미요시에서 기차
로 들어가는데 바로 廣島、岡
山、鳥根、四果의 정경에 걸친
高岳지대로서 東城町에는 인구
약 一만명중 우리동포가 근
三백명있는데 사상적인 경향
은 없고 그리스도교전도를 한
영한다고 한다.

世界連邦아시아會議

明秋에 다시東京에招致

지난 여름에 덴마크·코펜하
겐에서 모인 세계연방회의(世
界連邦會議)에 유력한 대표단
을 보내서 세계의 연세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일본 세계연방
건설동맹(世界連邦建設同盟)에
서는 지난 十一月七、八日
중의원 제일 의원회의실에서
전국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하라
오카(平岡)사사모리(善森)
등과 대표들의 코펜하겐 회의
의 보고가 있는 뒤에 부총
카가와(實川)씨를 의장으로
하여 의사에 들어가서 一九五
四年十一月에 日本에서 제二
회 세계연방아시아대회를 열것
을 의제로 토의하여 一九五五
년 국련헌법 개정을 앞두고
여론을 일으키자, 세계총교회의
질기를 재촉하자 등 五개조목
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하는 이상(理想)으로 동포
실업자로써 조직되어 台東區오
까찌마찌(御徒町)에서 개업중
이던 동화(同和) 신용조합은
기보한바와 같이 지난 여름
민전제의 불법 점거(?)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의 이상은
글자 그대로 공상이 되고 말
았음인지 다시 민단계열 속
의 금융기관 조직을 준비중이
던바 주로 민단계열의 실업가
를 모은 신용조합을 조직하기
로 되어 지난 二十日 오후三시
시바구(芝區)시바공회당에서
약三백명 참석리에 그 창립
(創立)총회를 개최하였다 한다
동 총회에서는 이사(理事)十
五명과 감사(監事)一명을 선
출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민단
지부의 단장 또는 과거의 인
원들이어서 민단의 한 자매기
관이라는 감이 있는데 사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명년 봄부
터는 사업개시가 될것이라
한다.

東亞信用組合

創立總會開催

경제인은 좌우합작할수 있다

먹고도 굶는 사람

어떤 부자가 가난한 친구를 만났다. 부자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자마자 "너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하고 물었다. 친구는 "저녁에 자는데 배가 고파서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자지 못하고..."

「자네 요새 어떻게 지내나?」
「나 지내는 것은 형편 없애, 저녁밥이라고 한술을 얻어먹고 는 밤새 두통 굶다가 아침에 죽 먹고 아침 먹고 한나절이나 굶다가 점심이라고 좀 오기하고 그리고는 싹 잊었다가 저

「문체 (한글로 쓰되 平易한漢字를 써어도 可한)」
「字數制限 四百字十枚」
「(新年) 懸賞論文募集」
「마감期限 一九五三年 十二月 末日」
「發表 一九五四年 二月 初號 (本紙 應募資格 本紙 一年代金 先納者)」

香氣 손님 대접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은 후 란스 바스크 지방에서는 식사 때 기도대신에 좋은 노래를 부르는 데 그 가운데 「주린이에 게 빵을 주시고」하는 구절이 있답니다. 지나가는 객을 재우 거나 대접하는 것은 신앙심이 있는 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흔 히 있는 풍속이요 옛날 유대사 람들은 잔치때에 동네 가난한 사람을 청해 대접했다. 원장도 옛날 어떤 고한원에 원장도

「賞金 一等 一萬圓 二等 五千圓 三等 二千圓」
「審査委員 張利郁 金萬敏 田榮澤 吳允台」
「J 財團社」

한국 요리법

닭 찜

재료 (한함 분량)
 양계 중것한마리, 느타리 세조각, 간장 다섯큰사시, 표고 세조각, 소금 조금, 석이 세조각, 호추 조금, 계란 한개, 깨소금 한큰사시, 물 삼합, 밀가루 두큰사시

1. 닭을 (닭 잡는법을 참고 할것) 정하게 준비해가지고 두다리위 두날개쪽 지를때고 몸은 떼어놓고 조각과 근사한 대소로 썰어서 냄비에 담고 물을 닭 재료 위에 훨씬 올라 오도록 많이 붓고 고기가 아주 무르도록 오래 삶아서.

2. 밀가루를 냉수에 풀어서 닭 삶은 국물에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파마늘 생강을 이겨서 넣고 다시 이 국물이 절반이나 졸도록 잘 끓이고 여기에 버섯들과 계란지단 썬것으로 위에 모양있게 얹고 다시 한참 끓여서 상에 놓는다.

영 계 찜

재료 (한함 분량)
 양계 한마리, 간장 네큰사시

숙주, 석이, 표고, 계란, 실백, 기름, 대, 반보시, 두조각, 두조각, 한개, 한큰사시, 한큰사시, 파, 마늘, 호추, 깨소금, 감자, 당근, 두부, 한쪽, 한큰사시, 한큰사시, 증것한개, 증것한개, 물, 세합

1. 영계에다가 더운물을 끼얹어가면서 털을 뜯고 신문지를 불붙여서 잔 솥털을 그슬리고 내장을 빼내고 자금자금하게 토막을쳐서 갖은 약념을 해서 (갖은 약념은 간장과 마늘 깨소금 기름 호추가루) 불에 올려놓고 (살짝볶다가 물을 부을것)
2. 숙주를 아래위를 따고 살짝 데쳐서 꼭 짜놓고.
3. 감자와 당근은 껍질을 벗겨 대추만큼씩 썰어놓고.
4. 표고 석이를 정하게 씻어서 (석이 씻는 설명참고) 끓여놓은 솥에 넣고.
5. 이 여러가지 재료들을 전부 다 닭에 함께 섞어서 잘 끓여놓을 줄여가지고 간을 맞추어 만든후 합에 담고 계란지단을 골짜쪽 처럼 얹어 얹고 실백을 뿌릴 것이니라.

한글 교실

(제 30 시간)

張 曉

(3) 거센소리 (有氣音·帶氣音)
달소리에는 또 거센소리가 있습니다. 곧 **ㅈ, ㅊ, ㅋ, ㆁ** 파위로 나타내는 소리를 거센소리 (有氣音)라 합니다. 이것들은 제대로 거센소리이지마는 예사소리인 **ㅅ, ㅆ, ㄷ, ㄴ**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숨길의 힘을 입어서 거세게 날 때에도 거센소리 (**ㅈ, ㅊ, ㅋ, ㆁ**)로 됩니다. 그러므로 **ㅈ, ㅊ, ㅋ, ㆁ**을 유기음, 또는 대기음이 라 합니다. 그런데, 목구멍에서 숨길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곧 **ㅎ**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ㅎ** 소리도 거센소리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ㅈ, ㅆ, ㄷ, ㄴ** 소리가 목구멍소리 **ㅈ, ㅊ, ㅋ, ㆁ**과 함께 날 때에는 **ㅈ, ㅆ, ㄷ, ㄴ**은 언제나 거센소리 (**ㅈ, ㅆ, ㄷ, ㄴ**)가 됩니다. 이제 실례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수염은 **하얗고**, (**하야코**)
얼굴은 **벌겅다**, (**벌거타**)
이 **하얗고, 벌겅다**를 소리내어 (발음하여) 보십시오. 실제로는 **하야코, 벌거타**로 남니다. 이것은 곧 **ㅇ, 양, 겹**의 **ㅎ**과 **ㅇ, ㄷ**의 **ㅈ, ㄷ**이 함께 나기 때문에 **ㅎ** 소리를 낼 때의 숨길의 힘을 입어 **ㅈ, ㄷ**이 각각 **ㅈ, ㄷ**과 같은 거센소리로 난 것입니다. 또, 문이 닫히어 (**다치어**)

숨이 막히겠다 (**마키겠다**)
이와 같이 **ㅎ**이 **ㄷ, ㅈ**의 아래에 있어도 **ㄷ, ㅈ**은 **ㅈ, ㄷ**으로 남니다. 이것은 앞엿 것이 먼저 나고, 뒤엿 것이 나중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나는 자리가 서로 다르므로, 먼저도 나중도 없이

함께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의 법칙을 가지고 표를 만들면,
ㅈ+ㅅ=ㅈ 종지 (조치) 않다.
ㅈ+ㅎ=ㅈ 안히어라 (안치어라)
ㅈ+ㅈ=ㅈ 벌겅게 (벌거게)
ㅈ+ㅊ=ㅈ 막히었다 (마키었다)
ㅈ+ㄷ=ㅈ 좋다 (조타)
ㄷ+ㅎ=ㅈ 닫히었다 (다치었다)
ㅈ+ㅁ=ㅈ → 다치었다)
ㅈ+ㅎ=ㅈ 입히어라 (이치어라)
이 가운데 **다치었다**가 **다치**었다"로 되는 것은 같이 **간**치"와 같이 **입천장소리**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ㅈ, ㅆ, ㄷ, ㄴ**이 그 앞이나 뒤에 **ㅎ** 소리가 따를 때에는 **ㅈ, ㅆ, ㄷ, ㄴ**으로 나는 이치를 알았은즉, 말본의 법칙을 깨뜨리지 말고 바로 적어야 하겠습니까.

날고 (나코產) 농지 (노치置)
넣고 (녀코入) 잃지 (일치失)
많다 (만타多) 쓸고 (솔코)
점잖게 (점잔체體) 귀찮다 (귀천타) 언짢지 (언짢지)
그런데, 위와 같이 말본 상의 까닭이 없이 다만 두 소리마디에 걸쳐서 나는 거센소리는 **ㅎ**을 갈라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직한다) → **지킨다** (守)
(죽하) → **조카** (姪)
(박취) → **바퀴** (輪)
(집향이) → **지팡이** (杖)
이런 것은 **직한다, 죽하, 박취, 집향이**로 적어도 말소리로는 깨달을찌 모르나, 이렇게 적을 까닭이 없습니다. 마치 **오빠, 아버지, 사람**을 **음바, 압앗이, 살안**으로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입니다.

最近 世界二大勢力의 紛爭은 積極的으로 美國民衆에게 美國의 獨立主義政策은 단지 世界征服의 機會만을 노리고있으며 한 國家를 征服하고 또 다른 國家를 征服하여 漸次的으로 全世界를 支配하려는者들에게 機會을 備바람이라는것을 確信시켜주었다.

또한은 美國이 如何한 希望을 무릅쓰고라도 平和를 希望하는 國民이며 또한 韓國과 같은 적은 나라를 救援하지않을것이라고 믿었기때문에 朝鮮 共產主義者들의 世界征服과 全自由諸國이 취한 行動은 確實히 法律을 遵守하며 平和를 사랑하는 善良한 國民을 侵略으로부터 防衛한 行動이었다.

自由諸國이 취한 行動은 確實히 法律을 遵守하며 平和를 사랑하는 善良한 國民을 侵略으로부터 防衛한 行動이었다.

自由諸國이 취한 行動은 確實히 法律을 遵守하며 平和를 사랑하는 善良한 國民을 侵略으로부터 防衛한 行動이었다.

過去數十年間을 通하여 美國의 平和主義者들은 大개 그 前提에 反戰論을 宣言하였다. 如何한 代價를 支拂해서라도 正義를 探究하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을 無릅쓰고도 平和를 유지하려고 努力하였다. 이들 平和主義者들은 以前부터 正義는 全人類社會에서 참다운 平和의 基반이 되 어있다는것과 또한 正義가 人類의 文明이 存續하고있는限 社會의人間關係에서 善惡의 礎石이 되어야한다는 事實을 明 確히 알았다.

最近 世界二大勢力의 紛爭은 積極的으로 美國民衆에게 美國의 獨立主義政策은 단지 世界征服의 機會만을 노리고있으며 한 國家를 征服하고 또 다른 國家를 征服하여 漸次的으로 全世界를 支配하려는者들에게 機會을 備바람이라는것을 確信시켜주었다.

또한은 美國이 如何한 希望을 무릅쓰고라도 平和를 希望하는 國民이며 또한 韓國과 같은 적은 나라를 救援하지않을것이라고 믿었기때문에 朝鮮 共產主義者들의 世界征服과 全自由諸國이 취한 行動은 確實히 法律을 遵守하며 平和를 사랑하는 善良한 國民을 侵略으로부터 防衛한 行動이었다.

참永遠한平和의길

李大統領談

I. N. S 에서

韓國半島의 征服에 對한것이지 過誤라고 생각할수가 있는가? 그것이 永遠한 平和를 保證할 수있으며 美國의 安全은만 아 니라 自由諸國의 安全을 保證 할수가 있을것인가? ...

美國의 平和主義者들은 以前부터 正義는 全人類社會에서 참다운 平和의 基반이 되 어있다는것과 또한 正義가 人類의 文明이 存續하고있는限 社會의人間關係에서 善惡의 礎石이 되어야한다는 事實을 明 確히 알았다.

最近 世界二大勢力의 紛爭은 積極的으로 美國民衆에게 美國의 獨立主義政策은 단지 世界征服의 機會만을 노리고있으며 한 國家를 征服하고 또 다른 國家를 征服하여 漸次的으로 全世界를 支配하려는者들에게 機會을 備바람이라는것을 確信시켜주었다.

달아바람이차구나

秋湖堂人

달아 별서 바람이 차구나
달도 한 낙엽소리
또한 쓸쓸하구나
아득한 먼 나라에
달아 나는 널 두고
만리타국에 왜 왔는고
달아 바람이 차구나

×

달아 놀람구나
네 그리두 감할 줄을
내 꿈에도 몰랐구나
오 내달아 놀람구나
군사일은 외로운 장수
단신으로 적진을 치니
그도 너도 감하지않으냐

×

오오! 달아
어미의 마음이야
넌들!

×

달아 감하여라
줄곧 감하여라
보라 배마를 타고
어린 몸이 내 달린다
「오르레안」성을 향하여
조국을 내가 구한다
저 위에 감한 손이
온 누리에 물로 감한
그 손이 너를 너를

李大統領 威副統領

이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부패한 정부를 물러엿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형용을동을 동지들과 하다가 임금의 노복사서 장서가되고 오래 감옥생활을 함때 일이다.

마침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겨우 일 아홉살에 법관장소를 졸업하고 만사가 되었는 함태영선생은 나라를 사랑하는 충심으로 한일이 무슨 죄나 하여 두죄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두분은 인연이 생겼다.



田榮澤 作

청천 벽력의 운명?

그해 겨울은 몹시도 치웠다. 오라간만에 전에 청정에서 어머니와 또 아버지, 고장노가 줄거 부르든 찬송가(본래는 한복사의 작사라는) 유명한 노래를 치면서 불려본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실자가 밀에 나아가 내 집을 돌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해는 유리창으로 들여 조이는 해변을 온 몸에 받으면 서 안방에 있는 철이가 팔가 바 나직한 목소리로 가만가만 히 찬송을 끝까지 불렀다 비

특 성량이 부족하지마는 목소 리는 명애 자신처럼 맑고 부 드러왔다. 내 주와 맺은 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가까지는

나 돌아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 순이 너 언제 왔었니 너 두 찬송 불렀구나 그래 다시 한번 부를까」 순이를 옆으로 가까이 불러가

지고 내가 남은 찬 팔만듯이 한번 머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불렀다. 「아주머니 전 이 찬송이 제일

좋아요!」 「그래 너무 이 찬송이 좋다」 나 두 이 찬송이 좋다」 그리자 순이는 시어머니가 불 러서 나가고 명애는 멍하고 혼 자 앉아있다 금방 명애하는하

늘에 검은 구름이끼고 바람이 물기 시작하여 날씨가 사나워지 는것을 보고 명애는 혼자 중얼 거린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응 험 해도 내 주님만 따라 가리?

Dodge De Soto

CHRYSLER WINDSOR DELUXE \$3,467.44
DODGE KINGSWAY CUSTOM \$2,556.70

Prices includes Radio, Heater, etc. 1954 Models

新車사실분은
한번日本事務
所로來訪하십
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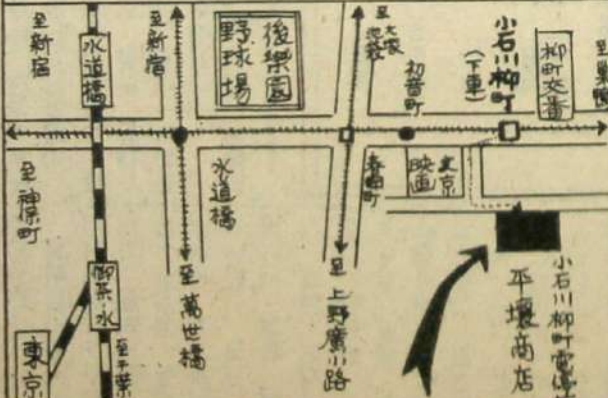
柳韓근리아모터一스日本事務所
東京都港區青山南町 6-120
電話 青山 40-0032



Chrysler Plymouth

平壤商店

朝鮮布木



東京都文京區丸山福山町四番地
電話・小石川(92) 0187・4879
イマナ 32バイトク